

경영안정 자금·특례보증 확대...피해 최소화

광주시, 신종코로나 대응 경제 단체와 현장간담회 중기·소상공인 애로 청취...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도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기관 단체와 긴급 현장간담회를 갖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0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은행, 국민은행,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광주관광협회, 숙박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등 22개 경제 유관기관과 단체와 긴급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경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 선제적·실질적 대응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광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들은 "감염병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등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여행업, 음식점,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운영자금 지원, 특례보증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는 바람에 어느 때 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별 자금지원과 지방세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 행정력과 지역사회 역량을 결집해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면서 "지역 경제기관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관바로 시 관련 부서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있는

추가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빠른 시행을 독려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우선 지난 3일부터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운영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역경제대책 상황실을 통해 지역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유관기관·자치구와 합동으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경제분야 지원책으로 2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섰다며, 총 300억원 규모의 감염증 피

해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카드 특별할인 등도 운영한다. 오는 12일부터는 432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14일부터는 25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도 조기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수출 진흥자금 등을 확대·조기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분야 긴급 조기 집행, 예비비, 기금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스크 만들어 무료 배부

10일 광주 광산구 자원봉사센터 작업실에서 회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친환경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광산구 자원봉사센터는 광주의 관문인 공항과 송정역에서 마스크가 필요한 시민에게 하루 평균 300개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신종코로나 전남지역 의대 유치 당위성 증명

무안공항 등 감염병 취약 불구 감염내과 전문의 2명 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전남에 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은 타 지역 대비 순식간에 전염되는 감염병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의대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감염내과 전문의는 단 2명에 그치고 간호인력을 포함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지난 6일 전남에서 첫 확진판정

을 받은 A(46·나주)씨 이후 더 이상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자가 격리자(76명)와 모니터링 대상자(무안공항 입국자 24명) 등을 관리하고, 추가 확진자를 막기 위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정치권과 전남도, 전남도의회의는 감염병의 초기 대응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남에는 감염병 전문의가 목포 한국병원, 순천 성기롤병원에만 한 명씩 2명에 불과하며, 국가 지정 감염병 입원 치료 병원인 국립목포병원은 치료 병상만 10개 있

는 뿐 감염병 전문의가 없는 등 열악한 지역 의료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외당 윤순하 의원은 "국립목포병원조차 확진자 발생 시 의사가 없어 광주에 있는 전남대·조선대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는 게 전남 의료 서비스 환경의 현주소"라면서 "전남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바로 의대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은 정부 지표로도 잘 드러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 환경 등을 따져 지정·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역(기초단계)' 전국 99곳 가운데 17곳이 전남에 편중돼 있다. 1만명당 의사수도 전국 평균 28.9명보다 4명 이상 적은 24.7명에 그쳤다. /김형호 기자 khh@

복합문화센터로 변신한

'전일빌딩 245' 관리 조례 제정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복합문화센터로 다시 태어난 광주 전일빌딩의 관리·운영 방안을 규정할 조례가 제정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일빌딩 245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시민의 권 수렴을 위해 취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일빌딩 245는 도로명 주소(광주 동구 급남로 245)와 건물에서 발견된 탄흔 숫자가 245개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 붙여진 이름이다. 휴관 일은 1월 1일, 설, 추석으로 한정했다.

광주시장은 관리·운영 사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사용료는 3층 시민갤러리 5만원, 4층 중회의실 3만원, 소회의실 9000원, 8층 다목적강당 5만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지정 광주시, 이번 주 내 완료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토지 보상·계획인가 등 마무리

광주시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지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10개(9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수량·마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이다. 중외공원을 제외하고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시행자 지정이 마쳤다.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되고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자는 수량공원 오픈하이엔씨, 마복호반베르디움, 봉산 제일건설, 송암 고운건설, 일곡 이지건설, 운암산 우미건설, 신용 산이건설, 중앙1지구 한양, 중앙2지구 호반건설이다.

중외공원은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변경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다. 시는 중외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 협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 내

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멸시효 임박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공원 부지를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공원일몰제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이 제한됐으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땅 주인이 자유롭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돼 공원 지정 효력이 해제되는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비공원 시설)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3년까지 공원 786만 8000㎡의 90.3%(710만4000㎡)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000㎡) 부지에는 아파트 1만2000여가구가 들어설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817대 1' 광주 대표 도서관 설계 공모 심사

저명 건축가들 심사 거쳐 14일 당선작 발표

상무 소각장 부지 392억 투입

내년 공사 착공 2022년 준공

광주 도심 내 협오 시설 중 하나인 상무 소각장을 광주 대표 도서관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국제 설계공모 최종 심사가 시작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토마스 보니에르 세계건축가연맹 회장 등 심사위원 8명은 이날부터 이틀간 광주 비엔날레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심사에 앞서 위원들을 만나 신축 도서관의 의미 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상무 소각장은 그동안 분쟁과 갈등의 상징이었지만,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대표 도서관으로 건립되는 의미 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정로의숲과 문화 등 광주의 고유함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져 품격 있고, 이용자에게 환영받는 도

서관이 되도록 좋은 작품을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토마스 보니에르 회장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프랑스 퐁피두 센터 등은 모두 국제 현상설계 공모로 건립됐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접목된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표 도서관은 2016년 12월 폐쇄된 상무 소각장 부지에 국비 156억8000만원, 시비 238억2000만원 등 총 39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1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공모에는 국내 193개, 국외 624개 등 62개국 817개 팀이 등록했으며 당선작은 오는 14일 발표 예정이다.

광주시는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